

##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임새롬\*\* · 민경훈\*\*\* · 백성혜\*\*\*\*

이 연구는 예비음악교사의 미적 경험과 창의-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예술과의 심미적 경험을 통해 널리 깨어 있음(wide-awakeness)을 주창한 Greene의 예술교육 철학과 이를 방법론으로 구현한 LCE의 예술교육 및 융합교육과 관련된 선행문헌을 분석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회의 를 통해 대주제 및 소주제를 설정한 후 핵심원리를 도출하였다. 핵심원리의 유사성과 대표성을 분석한 결과 음악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미적 교육 수업원리는 의식적 주목, 체화 인지, 의미 창조의 3가지, 삶의 주체인 나와 전 예술 및 삶의 연계를 위한 융합교육 수업원리는 개방성, 융합적 사고, 실제적 지식의 3가지, 두 교육 간의 프락시스(praxis)적 특성 범주인 공통 수업원리는 직접 경험, 상호작용과 소통, 참여와 실천의 3가지, 각 수업원리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수업도구로서의 학습지원 수업원리는 환경 조성, 성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3가지이며, 총 4개 범주 12가지로 재구성된 수업원리는 정의, 하위 요소, 세부 내용 및 상세지침으로 구조화시켰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업원리는 향후 예비음악교사 양성단계에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실천적 연구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검색어:** Greene, LCE, 예비교사교육, 음악교육, 심미적 교육, 예술교육, 융합교육, 수업원리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
| II.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배경 | IV. 결론 및 제언            |

## I. 서론

융합교육의 시대적 흐름은 더욱 분명해져 세계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지식’이 아닌 ‘역량’의 강화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국내에 융합교육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 초점이 다소 과학과 기술 등 이공계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트렌드에 따라 조직되는 학교 융합교육에서 음악은 그저 이들을 보조적으로 맞춰주는 수단에 불과한 실정하기에 음악의 본질을 지키면서 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권수미 2012; 김경화·장기범 2015; 조대현; 2019).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4081191)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박사수료, 제1저자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연구소장, 화학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shpaik@knue.ac.k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에서 융합교육의 의미를 재고찰함으로써 교사 개인의 철학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융합교육의 성공은 무엇보다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김은진 2019; 박인우 외 2019; 백성혜 외 2017; 이희용 2011; 조대현 2014).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교육의 실천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지식전달자가 아닌 스스로 창의성과 융합교육역량을 갖춘 교육전문가가 되어(김이경 외 2015) 융합교육을 통해 필요한 미래 인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안내하는 촉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대현(2014)은 교사의 자질 문제를 언급한다. 교사가 융합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합적인 환경에서 선행조직자로서 가치의 다양성과 단계적 결과물에 대한 교육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융합적 경험을 가진 교사’의 양성을 의미한다.

교육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자 만일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방법 중 하나다(Greene 2001). 정체성은 단지 자신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스스로와 관련된 ‘공존’을 의미한다. Greene이 주장한 심미적 교육의 큰 메커니즘은 한 개인이 예술 작품을 통해, 정확히는 예술 작품의 매개를 통해 자기 스스로와의 만남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감뿐 아니라 타인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Maxine Greene(1917~2014)의 예술교육철학에 주목하였다. Greene(2001)은 예술을 통한 심미적 교육을 개개인의 전인적인 발달, 즉 인지적·지각적·정서적·상상력의 개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겼으며, 교사교육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다.

교육철학자였던 Greene은 Colombia 대학교의 Teachers College에 50여 년간 재직하며 언제나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을 자신의 강의 소재로 활용하였는데, 그의 철학은 그가 40년 동안 상주철학자로 있던 미국 뉴욕의 LCE(Lincoln Center Education, 이하 LCE)에서 학생과 교육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실존주의와 Dewey의 실용주의(pragmatism)에 적극 동의하여 우리의 몸과 감각이 빚어내는 모든 현실은 자신과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지며 이를 위해 항상 예술로써 ‘널리 깨어 있음(wide-awakeness)’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널리 깨어 있음’은 예술로 창작되고 또 예술을 통해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문의 구조를 스스로 의미 있게 생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경계를 가로지르며 담을 허무는 것이기에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일종의 해방이 된다’(Greene 1973)고 하며 당시로써는 매우 드물게 철학 강의에 예술 분야를 융합하여(Kohli 1998) 삶과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야 간의 융합이 수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계되어 삶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진정한 융합으로써 흔히 융합교육이라 하면 STEAM으로 대표되는 과학 중심의 융합교육을 떠올리는 실정 속에서 Greene의 철학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Greene의 예술교육철학과 LCE의 예술교육을 고찰하고 분석한 국내외 연구(Abowitz 2016; Gulla 2018; Kohli 2016; 광덕주·최진 2018; 임부연 2013; 박연수 2018), 이를 근

간으로 개발한 학생 대상 심미적 교육 관련 연구(김수진·류재만 2013; 권은재·강인애 2017)는 있으나 중등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미적 교육 연구나 수업원리를 개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 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구는 조대현(2013, 2014a, 2014b, 2015a, 2015b, 2017)이 예비음악교사 양성을 위한 융합적 사고 기반 음악교육에 관하여 다각도로 지속해서 철학적·심리학적·융합적으로 연구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예비음악교사를 위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교사교육을 위한 실천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 명의 교사를 교육하는 것은 교사 너머 수백 명의 학생을 만나는 것과 같다. 예비교사는 교사양성과정의 학습자이자 동시에 미래의 교사라는 특수한 입장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수업원리는 예비교사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음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설계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발된 수업원리를 적용하여 예비음악교사교육을 위한 수업을 설계·실행하는 후속 연구에 앞서 실천적 연구의 뼈대를 마련하는 문헌 및 개발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에 기반하여 음악 교사의 미적 경험과 창의·융합 역량과 수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예비음악교사 대상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를 위한 수업원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 II.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배경

### 1. Greene의 예술교육철학: 심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

#### 가. 심미적 경험

‘심미적, 미적, 감성적’으로 많이 번역되는 ‘Aesthetic’은 Baumgarten(1750)이 주창한 미학(Aesthetics) 용어이다. Baumgarten이 쓴 라틴어 저작 제목은 ‘Aesthetica’로, 이는 ‘느끼다, 지각/감지하다, 감각, 인식’이란 뜻의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aisthesis, ἄισθησις)에서 왔는데, 이 말의 어원은 ‘(나는) 본다, 들린다, 인지한다’라는 뜻의 ‘아이스타노마이’(aisthanomai, αἰσθάνομαι)로부터 유래한다. 이는 단순히 대상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보고 듣고 인지하고 감각하며 이해하고 배우는 범주를 포함하는 말이다. 이는 주로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거나 인식되는 ‘미학’의 핵심인 ‘심미’의 진면목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심미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이와 대조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무감각함’이다. 무감각함이란 마취 상태(anesthetic)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정서적인 무능 상태를 의미한다(Greene 2001). 심미(審美)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살피는 것이며 심미안(審美眼)은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인간 고유의 안목으로 심미적으로 지각하는 힘, 즉 특별한 누군가의 능력이나 고급스러운 취향이 아니라 대상에 내재한 미적 특성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발견하는 지적 능력이다. 개인이 심미안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창작하는 활동으로서의 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심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의 특성에 대해 민경훈 외(2013)는 고유성, 감정 수반, 지적 숙고, 주의 집중, 직접적 경험, 자아실현, 잠재적 능력의 7가지로 보았고, 이홍수(1990)는 고유성, 직접적 경험, 감성적·지적 특성, 주체적·주관적 현상의 4가지로 꼽았다. 즉 심미적 경험의 특성을 크게 3가지로 묶어보면 태도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 지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태도적 특성과 어떠한 판단 이전에 먼저 느껴지는 정서적 특성이 있으며<sup>1)</sup>, 앞의 주관적 현상이 일상 경험보다 고차원적인 심미적 경험으로 전환되기 위한 대상에 대한 지적 특성의 인식이다. 이 3가지 특성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미적 경험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Greene(2001)은 형용사로서의 aesthetic은 예술 작품과의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험의 양상을 묘사하거나 부각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심미안은 특히 예술 작품을 통한 ‘하나의 완성된 경험’으로써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고양될 수 있으며(Dewey 1934; Greene 2001), 심미적 경험은 바로 이 심미안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즉 심미적 교육이란 심미안의 개발과 향상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심미적 예술교육

Greene(2001)의 심미적 교육이란 ‘예술과의 감상적·사색적·문화적·참여적 관계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의도적인 노력’이며, ‘심미적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주목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술 작품에서 다양한 의미를 얻어낼 수 있음으로써 예술에 자기 삶을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자기 삶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태도로 변혁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상상력을 품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맥락 속’으로 뛰어들어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굳어진 것이 해체되고 의미화되는 과정은 예술과의 심미적인 만남을 통해 가능한데, 이때의 핵심 요소는 예술 작품, 매체 탐구와 예술 작품의 제작에 필요한 감각 경험과 직접 경험, 맥락 정보이다. 이는 철학하기(doing philosophy)로 이어지고 널리 깨어 있음과 사회적 상상력(social imagination)의 태도로 발현된다. 이 3가지는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을 완성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며, 사회 변혁적 실천으로서의 교육으로서 민주적 공동체의 완성을 지향한다. 심미적 교육의 결과물은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술·미학·교육의 여러 층위(layer)와 연계

1) 그런데 Immordino-Yang과 Damasio의 연구(2007)에 따르면 정서는 마치 유리 제품을 받치고 있는 선반(shelves)처럼 우리가 이성적·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정서를 느끼는 뇌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어떤 사소한 판단조차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정서가 인간의 추론과 의사결정, 이성적 사고에 크게 작용하며, 사실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은 정서와 감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프락시스(praxis)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 심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예술 작품의 세계를 탐험하고 탐험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이 필요하다. 교육의 소재로 선정되는 예술 작품에 대해 Greene은 여러 저술에서 다음 3가지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첫째, 여러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여러 층위(layer)를 가진 미적 대상이어야 하며, 둘째, 관습적인 정전(canon)에서 확장된 동시대의 예술로서 인간 삶의 조화와 부조화를 아우르는 작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Greene은 도노휴(Donoghue, D.)의 표현을 빌려 사람의 인생을 텍스트와 여백으로 이루어진 ‘지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백’으로서의 예술을 강조하고 있다(Greene 1995/2019). 우리의 일상과 거리를 두는, 낯설게 보기를 훈련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reene은 직접 만드는 것에서부터 감상을 통해 공동체와 공유 및 공감하며 성찰하는 것까지의 전 과정을 일련의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심미적 경험의 성질이 만들면서 재미있거나 감상하면서 즐거운 감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Dewey 1934/2016)’는 것이다.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거나 무용을 보며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느낌 그 자체는 심미적 경험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이는 다만 순간적인 느낌과 정서에 불과하며 이것이 심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재료와 표현 방법 등에 대한 집중과 숙고, 이로써 발견되는 매체와 메시지의 일체감과 내 삶의 경험이 융합되는 전율, 이로써 더욱 확장되는 정서적·인식적 깨달음이 필요하다.

Greene(1978)은 “만약 교사가 배움에 대해 ‘학습자가 자신의 배움에 책임감 있게 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수업에 임하는 학생마다의 자율성을 받아들이고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찾도록 관여(engage)하는 것이며, 관여란 의미를 알려주고 교사가 직접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고 촉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개개인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돌아보고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깨어 있음’과 부조리한 상황을 고치고자(repair) 하는 능동적·의식적 태도의 함양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In education here, not in schooling.”(Greene 2001), 즉 학생들을 학교화 시키는 것이 아닌 삶과 연결된 진정한 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주장한 3가지 발견, 즉 자기 자신의 발견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발견, 그리고 이 둘 사이 연결성(connection)의 발견에 집중하여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를 맥락화(contextualization)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미적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맥락을 돌아보고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를 예술을 통해 고민하게 한다.

## 2. Greene 예술교육철학의 실천: LCE 예술교육

### 가. 교육목적 및 교육원리

LCE의 교육목적은 ‘상상적 사고를 위한 역량(Capacities for Imaginative Thinking)’을 활성화하고, 예술 작품을 학습 경험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젊은 마인드들로 하여금 ‘예술가처럼 생각

(Thinking like an artist)'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LCE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년별 또는 과목별로 맞춤형 예술 기반 경험을 설계하고 제공함으로써 심미적 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교육예술가(Teaching Artist, 이하 TA)와 교사 등 교육자들이 모든 과목, 모든 영역에서 미적 교육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전문성 개발 워크숍을 제공하여 학교와의 다양한 교육과 학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LCE의 교육원리는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크게 ‘상상적 사고를 위한 10가지 역량’, ‘탐구(질문) 과정과 4가지 핵심교육 개념’, ‘Teaching Artistry의 핵심역량 또는 필수 6가지’, ‘예술교육가의 실천을 위한 7가지 필수요소’의 4가지가 있다. LCE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교육인 교사를 위한 AE(Aesthetic Education Immersion) 과정과 TA 과정은 예술을 교육하는 교육자가 가져야 할 다양한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세부적인 원리들로 구성되는데, 이는 모두 LCE가 지향하는 ‘상상적 사고를 위한 역량10가지2)를 골자로 한다. 나머지 3가지 원리는 교사나 TA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들의 예술성을 활성화하고 실천적 태도를 성찰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1) 상상적 사고를 위한 역량 10가지

LCE는 Greene의 상상력에 관한 철학을 기반으로 ‘젊은 마인드가 역동적인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Helping young minds perform in a dynamic world)’ 상상적 사고를 위한 10가지 역량을 학생이나 교사, TA 등 LCE 예술교육에 학습자로 참여하는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역량은 교육대상, 즉 평생학습자가 역동적인 세계에서 예술활동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성공하도록 돕기 위한 10가지 마음(mind)의 습관이기도 하다.

<표 1> LCE의 대표 원리인 ‘상상적 사고를 위한 10가지 역량’

역량	질문 및 지침	내용
깊게 알아차리기	충분한 시간 동안 몇 겹의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예술 작품이나 다른 연구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부적인 층을 식별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질문 제기하기	무엇이 궁금한가?	-질문을 집요하게 사용하여 사고의 위치를 바꾸고 결론을 넘어 호기심을 유발한다. -“만약...라면?”이라는 질문을 한다.
연결하기	이것은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가? 개인적인 연결고리, 원문과의 관계 및 광범위한 연결을 만들어 보라.	-당신이 알아차린 것을 당신의 지식,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연관시킨다. -다른 예술 작품, 텍스트, 주제에서 세부사항과 아이디어를 비교한다.
패턴 식별하기	서로 다른 세부 사항들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그것들을 분석하라.	-예술 작품이나 연구 대상 내에서 발견되는 세부사항들 사이의 관계를 찾고 분석한다.

2) 이 원리들은 마치 교육과정처럼 용어나 세부내용이 개정되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연구자가 2019년에 LCE Summer Forum의 AE 과정과 TA Fundamentals 과정을 이수할 당시 적용되던 2014년 버전이다. 이후 2020,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Summer Forum이 개최되지 못하였고, 이후 세부내용의 수정에 관한 언급은 없다.

역량	질문 및 지침	내용
신체화	당신의 몸을 이용하여 당신의 생각을 탐구하라. 시도해 보라.	예술 작품이나 다른 연구 대상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신체적으로 탐구한다.
공감하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들의 관점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한다. 타인의 경험을 공감하고 마음속에 그려본다.
모호함을 견디기	만약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면? 복잡성을 감내하라.	이슈는 둘 이상의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문제가 즉각적이거나 명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해결점을 찾는 데 있어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내하는 것이다.
의미 창조하기	지금까지의 생각을 종합해 보라. 어떤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전의 역량에 기초하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자신의 해석을 형성하고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 그것을 보는 것이다.
행동 취하기	당신의 아이디어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천에 옮겨보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세상과 지역사회 내에서 당신이 상상하는 것을 실현해 보라.
성찰 및 평가	당신이 겪은 일을 돌이켜 보라.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은 무엇인가?	잠시 멈추고 자신이 한 일을 조사하기 위해 배운 것을 분석하고, 도전을 식별하고, 호기심을 새로이 한다.

2) Line of Inquiry (탐구과정, 이하 LOI)

LCE의 고유한 예술교육 모델 LOI(Line of Inquiry)는 ‘탐구과정과 4가지 핵심 교육개념(Inquiry Process and Four core Teaching Concepts)’으로 소개되어 있다. 탐구(Inquiry)란 학습자가 질문하고, 개인적인 발견을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나 학습내용이 아닌 학습자가 학습의 중심에 서게 하는 가르침과 학습에 대한 접근법이다. 보통의 예술교육이 작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이 탐구과정은 ‘살아있는 예술 작품(a live work of art)’에 집중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교과서나 영상과 같이 인쇄되거나 녹화된 2차 산물을 통한 간접 경험이 아닌 직접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이나 공연 실황 등 학습자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작품을 뜻한다.

LOI의 자원은 조사(research)와 호기심(wonder)이고, 지속적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발산되는 아이디어들이 대상(what)과 방법(how)을 만나 핵심 아이디어(key idea)가 되면서 활동하는 것이 주된 과정이다. 교수자는 활동이나 레슨 등의 수업을 설계할 때 아래의 과정과 핵심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상상력을 위한 10가지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때 교수자의 특성마다 진행 방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술성 활성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 체험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1	<b>예술 작품 만들기</b>	예술 제작은 예술 형식의 요소와 재료의 능동적인 탐구 및 조작이며, 창조적 과정 내에 포함된 선택과 제작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미적 교육에서 예술 제작은 예술 초점 작업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지각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2	<b>질문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 전략은 예술 작품의 탐구 전반에 걸쳐 아래처럼 여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li> <li>- 예술 제작 과정의 선택을 고려한다.</li> <li>- 이제 막 경험한 예술 작업에 더 깊이 참여한다.</li> <li>- 즉각적으로 맥락을 조사한다.</li> <li>- 자신의 학습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한다.</li> <li>-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li> </ul>
3	<b>맥락 정보 (탐색)</b>	맥락 정보는 특정 예술 작품의 "세상"을 구성한다. 맥락 정보에는 예술 형식의 역사나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적 태도, 문화적 기원,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 기술의 배경 등과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 자료에는 책, 기사,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인터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b>성찰</b>	"반사하다, 비추다"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뒤로 구부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적 교육의 맥락 안에서 성찰은 학습자가 워크숍 내에서 경험한 것과 예술로의 생성한 참여에 대해 되돌아보는 활동이다. 성찰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권을 가져가고 질의 과정을 더 진행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림 1] LO(Line of Inquiry)의 과정 및 내용

#### 나. 핵심요소

LCE 예술교육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두 예술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특히 함양해야 할 교수법들의 모델링이다. 교사, 그리고 학교의 관리자나 위한 과정에 학생의 입장으로 참여하는 동안 이들은 학생들이 예술교육에 참여할 때 어떻게 안내해야 바람직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LCE 예술교육을 구성하는 강의 및 교류, 예술 작품과의 만남, 교육철학, 수업계획 및 시연, 성찰, 및 TA 실천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경험, 협력 및 토론 수업방식, 환경조성과 핵심 질문을 만드는 통찰력과 기록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예술교육을 시행한다.

##### 1) 환경 조성

예술성 있는 안목은 작품에서 시작하여 수업환경과 분위기를 포함한 수업 전반의 곳곳에서 발현될 수 있다. LCE에서는 수업 중 참여자에게 던진 질문과 그들에게서 나온 자유롭고 제한 없는 답변들이 단어 그대로 분류 및 정리되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커다란 붙임종이에 기록되고, 그 종이는 주요 활동하는 공간 내 사방에 붙여 수업의 처음을 기억하고 현재를 확인하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꾸준히 상기하게 하였다. 학교로 말하자면 교실 벽 4개의 면 어느 곳을 보아도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를 직관적·감각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수업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 수업환경 또한 매우 세심하다. 수업에서는 참여자들의 답변이나 활동을 통한 결과물은 어떤 형태이건 언제나 수용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존재하며, 참여자들끼리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극성을 떨 수 있는 촉진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환경



조성 능력이 풍부하다. 수업내용에 맞는 조도와 실내온도는 물론 촉진자들이 자신의 목소리 톤과 볼륨을 조절함은 물론이다. 참여자들은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 또한 스스로없이 꺼낼 수 있게 된다. 수업 결과물의 수준이나 완성도에 대한 압박, 틀린 대답으로 인한 위축감이 없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경쟁적인 대답이나 속도가 늦어 탈락하게 되는 부담감 대신 침묵 가운데 천천히 숙고하고 성찰하는 태도만이 있다. 이렇듯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에 최적화된 방식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질문이나 작품처럼 자신과 마주한 어떤 대상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살피며 새로운 무엇을 발견하는 통찰력,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더욱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 2) 협력 및 상호작용

수업 형태는 보통 30여 명이 둥글게 앉아 마주 보고 개별·파트너·모둠·전체활동으로 진행된다. 하나의 작품을 함께 만드는 모둠활동은 각자의 예술성이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지기 위해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파트너나 모둠은 고정되게 짜이지 않고 지성적 없이 매시간 다르게 앉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파트너와 이야기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촉진자는 파트너 활동 후 발표 시에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발표해 보라’고 질문하는데, 이로 인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을 수반하게 하며 원활한 토론을 끌어낸다. 왜곡 없이 모두에게 파트너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둠 활동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나의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때는 좀 더 친절하고 세심한 표현으로 결정된다.

## 3) 반복적인 직접 경험

LCE에서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같은 예술 작품에 노출된다. 작품을 만나기 전 워크숍인 사전 워크숍(pre-workshop)은 참여자가 작품에 대한 정보 없이 촉진자의 안내를 따르는 예술 성격을 띠며 이후 퍼포먼스 시간에 작품을 볼 때 사전 워크숍에서 자신의 미리 학습했던 요소를 발견하는 순간 고무되는 감정으로 인해 작품에 뜨겁게 집중하고 교감하는 경험이 가능하다. 즉, 사전 워크숍을 하지 않고 작품을 만난다면 표면적인 경험에 그칠 확률이 높은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인 것이다. 워크숍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은 개별적이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활동이 끝난 뒤에 전체 틀을 살펴보면 위계와 순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공연이나 작품을 볼 때는 워크숍의 각 활동이 작품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담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사전 워크숍의 가장 큰 강점은 마치 구슬을 실로 꿰듯 워크숍에서의 각 개별활동이 하나로 엮이면서 마침내 지금 보고 있는 예술 작품으로 귀결되는 하나의 완전한 경험이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경험은 새로운 관점을 발생시킨다. 자신의 기존 관점과 새로운 관점의 비교, 그리고 같은 작품을 본 다른 참여자들의 관점과의 비교는 하나의 작품을 두고

맞고 틀린 것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의 관점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알게 한다. 반복적인 두 번째 관람은 참여자가 작품의 전체 그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관람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심미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Greene(2001)은 예술 작품을 반복해서 보고 경험할 때 자기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직관이 더욱 풍부하고 복잡해질 뿐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예술 작품이 더욱더 깊게 느껴지도록 자극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직접적으로 작품을 경험할 때, 해당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이 증가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작품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나와 무관한 대상이 아니라 작품과 만나기 전 사전 워크숍에서 자신이 예술에 관여(engagement)했던 경험으로 인해 살아있는 대상이 되고, 다른 작품을 접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전이되어 작용한다.

#### 4) 성찰: 핵심 질문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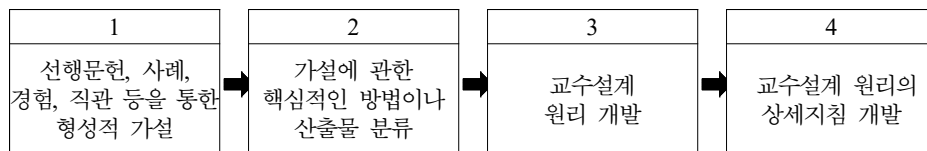
주요 작품(Focus Works of Art)과 만나기 전의 사전 워크숍과 작품과의 만남 후의 성찰 활동에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과 예술 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하며 성찰일지에 기록한다. 사후 성찰 활동(Post-Performance Reflection)의 시작은 보통 조용한 가운데 스스로 사유할 수 있도록 개별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사전 워크숍과 주요 작품과의 연결고리, 주요 작품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기 삶 혹은 수업과의 연계점 발견을 돕는 촉진자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예술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성찰한 후 그 내용을 전체와 공유하도록 한다.

### Ⅲ.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 1. 연구방법

##### 가. 선행문헌 분석

앞서 2장에서 살펴본 Greene의 예술교육철학과 LCE의 예술교육, 그리고 융합교육에 관한 내용을 Reigeluth(1983)의 ‘이론구성 절차(Theory-construction process)’에 따라 분류한다. 이 절차는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이 혼합된 순환적 과정으로 귀납적 접근의 3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4단계인 연역적 접근으로 수업원리를 미리 개발한 후 정의와 상세지침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즉 3단계와 4단계가 교체되는 것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Reigeluth(1983)의 이론구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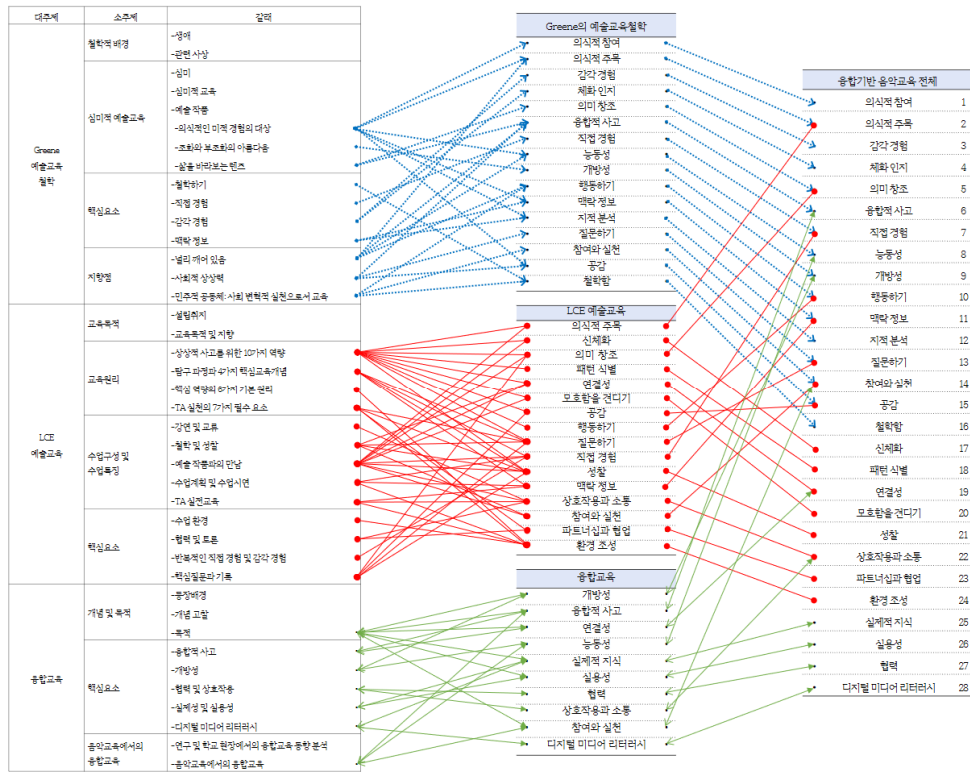
Maxine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를 개발은 Hart(2001)가 제안한 문헌 선정의 기준인 권위, 영향력, 관련성에 따라 선택한 선행문헌 분석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주제를 분류하고, 둘째, 문헌을 수집한 후 자료를 분석하는데 이때 수집된 자료는 Greene의 저서, 논문(Greene 홈페이지, 저서, 번역서, 구글 스콜라, 구글 북스 등), LCE 홈페이지 및 LCE Summer Forum에서 연구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배부받은 자료, 국내·국의 Greene·LCE·융합교육 관련 학위 및 학술지 논문(RISS)과 더불어 위 문헌들에 인용된 참고 문헌을 확인·추적한 후 관련 문헌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나. 핵심원리 도출**

수업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대주제에 따른 소주제별 문헌을 분석한 후 연구자 간 교차 점검하여 각 핵심원리를 도출하고, 도출된 핵심원리 중 중복된 것은 제외한 후 번호를 붙였다(그림 3). 앞서 문헌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한 것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Greene의 예술교육철학, LCE 예술교육, 융합교육을 고찰한 결과 도출된 핵심원리**

Greene의 예술교육철학	LCE 예술교육	융합교육
의식적 참여	의식적 주목	개방성
의식적 주목	신체화	융합적 사고
감각 경험	의미 창조	연결성
체화 인지	패턴 식별	능동성
의미 창조	연결성	실제적 지식
융합적 사고	모호함을 견디기	실용성
직접 경험	공감	협력
능동성	행동하기	상호작용과 소통
개방성	질문하기	참여와 실천
공감	직접 경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행동하기	성찰	
맥락 정보	맥락 정보	
지적 분석	상호작용과 소통	
질문하기	참여와 실천	
참여와 실천	파트너십과 협업	
철학하기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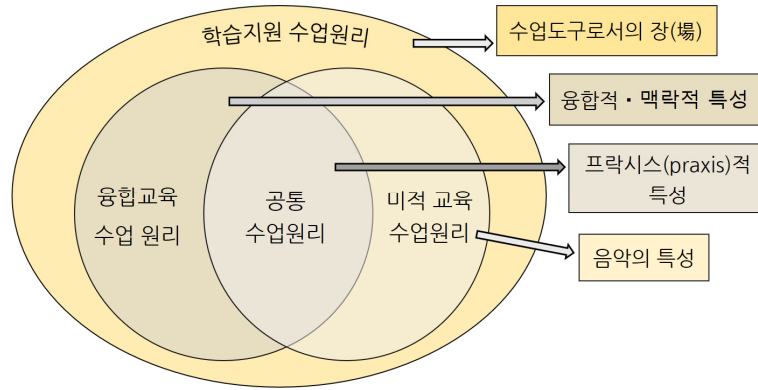


[그림 3] 선행문헌 분석에 따른 대주제 및 소주제별 핵심원리 간 연결

이후 여러 차례 연구자 간 회의를 통해 미적 교육과 융합교육의 공통점 및 유사성, 고유성을 분석하여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범주와 수업원리를 분류·도출하였다.

우선 2장에서 고찰한 Greene의 예술교육철학과 LCE의 예술교육, 융합교육에 대해 정리한 결과 음악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미적 교육 수업원리, 프락시스(praxis)적 특성의 공통 수업원리<sup>3)</sup>, 전 예술에 대한 융합적·맥락적 이해를 포괄하는 융합교육 수업원리, 미적 교육과 융합교육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학습지원 수업원리의 4가지 범주를 생성하였다([그림 4]). 각 범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3>과 같다.

3) Elliott과 Silverman(2015)의 음악적 프락시스와 Greene의 사회적 상상력 개념(1995)이 도덕적 특성이나 다차원적으로 확장된다는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양쪽 모두 Freire의 의식화 개념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직접적인 학습경험이 삶과 실제적 맥락에서 연결되고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주변 환경과 사회 및 공동체로 참여·실천하는 미적 교육과 융합교육의 공통된 3가지 수업원리는 다분히 프락시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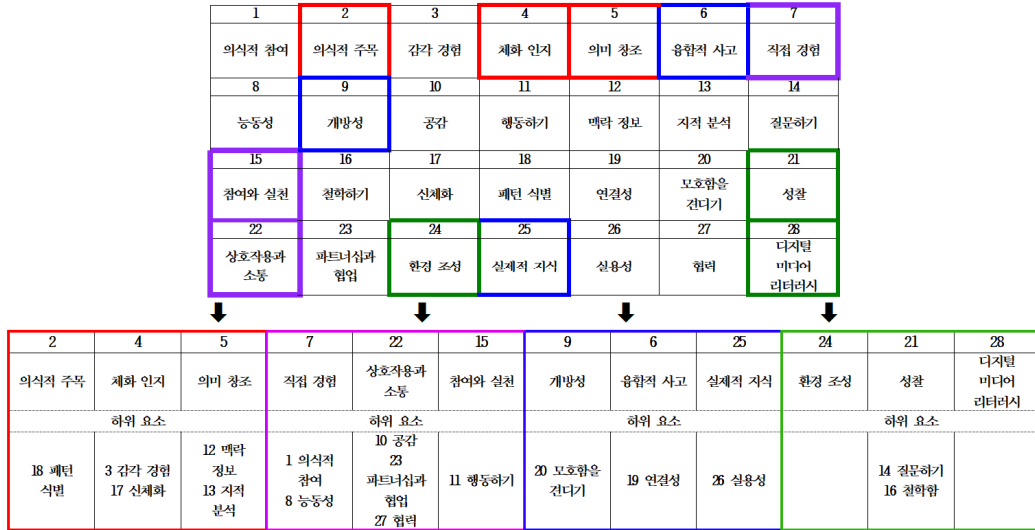


[그림 4]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의 범주

<표 3>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4가지 범주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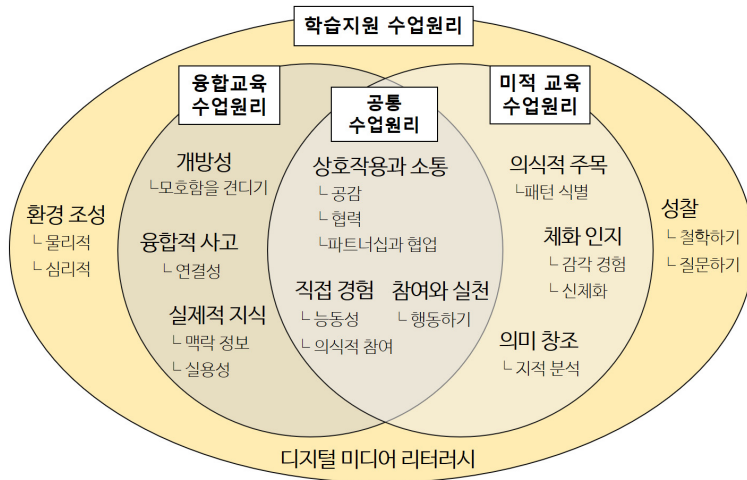
항목	내용
미적 교육 수업원리	감정과 감각의 본질에 대한 예술가의 통찰, 신체적·정감적인 생명 경험의 심상(心象)을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나타낸 예술인 음악이 가진 여러 속성을 발견하기 위한 범주이다.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에 기반하여 LCE에서 실천하고 있는 예술교육의 원리 중에서 개인과 음악이 심미적으로 만날 때 수반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포함한다.
공통 수업원리	미적 교육과 융합교육의 공통된 원리로 미적 교육과 융합교육이 지향하는 프락시스(praxis)적 특성의 범주이다. 미적·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공동체-환경에서의 가치 실천과 확산을 지향하고자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융합교육 수업원리	음악 미적 교육 수업원리와 융합교육 수업원리를 맥락적으로 연결하고 배치한 융합기반의 수업원리로서 주체인 ‘나’와 전 예술과 삶의 연계를 위한 융합적·맥락적 특성을 포함한 범주이다.
학습지원 수업원리	음악의 특성을 핵심으로 미학적 주체를 양성하고자 계획된 미적 교육과 융합교육의 실천을 위한 도구적 원리의 장(場)이다.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성공적인 달성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한 학습자에게 지원되는 교육 환경과 성찰로서 완성된다.

다음으로는 범주별로 3가지씩, 즉 Greene과 LCE의 예술교육과 융합교육을 각각 대표하는 핵심원리 6가지와 두 교육 간 공통된 핵심원리 3가지를 선별하고, 이 9가지 핵심원리들이 예비음악 교사 교육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데 필요한 학습지원 핵심원리도 3가지를 선별하여 총 12가지를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대표 핵심원리를 두고 이와 유사한 속성을 띠는 다른 핵심원리들을 각 하위 요소로 분류함으로써 9가지 융합기반 음악교육 핵심원리 및 3가지 학습지원 핵심원리가 도출되었다([그림5]).



[그림 5] 융합기반 음악교육 핵심원리의 범주별 선별 및 분류

마지막으로 앞에서 분류한 핵심원리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은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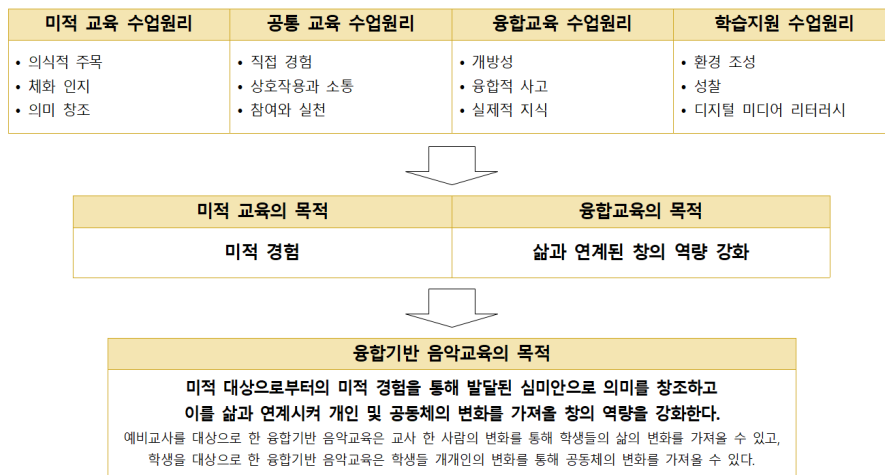


[그림 6]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12가지 핵심원리

### 3. 최종 수업원리 및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목적

앞서 분석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핵심원리의 정의, 하위 요소, 세부 내용, 상세지침을 설정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미적 교육은 미적 경험을, 융합교육은 ‘삶과 연계된 창의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융합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은 ‘미적 대상인 예술 작품으로부터의 미적 경험을 통해 발달한 심미안으로 의미를 창조하고, 이를 삶과 연계시켜 개인 및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올 창의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은 교사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 [그림 7]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7]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목적

이어서 제시될 12개의 수업원리는 Greene의 예술교육철학과 LCE 예술교육, 그리고 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며, Greene의 설명이 다소 모호하여 개념이 선명하지 않은 일부 내용은 그 의미를 명징하게 밝히고자 관련 국내외 연구를 추가로 조사·검토하여 보충하였음을 밝힌다.

**가. 미적 교육(음악의 특성) 수업원리**

1) 의식적 주목

의식적 주목이란 ‘미적 경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오직 미적 대상에 집중하고 관조하면서 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태도. 특정 대상에 대한 몰입과 관심(민경훈 외 2013)’으로 관조, 관찰, 분석, 집중, 몰입, 특정 대상에 대한 흥미, 심미적 조우(encounter), 패턴 식별의 하위 요소를 가진다.

미적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주의력을 도모하는 것이 먼저이며(Greene 2001), 의식적으로 주목하여 경험되는 미적 순간은 일종의 인식적 자각의 충격이 일어나게 된다(Greene 1978). 이때 몰입 가운데 대상의 표현 형식과 의미를 발견하여 그에 대해 물음을 던질 수 있도록 분석하고 탐

구하고자 하는 지적·태도적 측면이 모두 필요하다(이홍수 1990).

이를 위해 교사는 미적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LCE 2014; Greene 2001),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여러 층위의 표현 형식과 내용을 식별하는 동안 평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여러 층위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미적 대상이 존재해야 하며(LCE 2014), 대상과 개인 간의 심미적인 만남에 선 개념이나 다른 방해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교사는 집중된 관조 속에서 미적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환경과 교육 태도를 지속한다.

## 2) 체화 인지

‘신체의 감각이나 움직임에 의하여 미적 대상을 지각하고 탐구하며 그 의미를 수용한 후 창작 또는 표현으로써 미적 대상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몸의 행위이자 감각 경험(LCE 2014)’인 체화 인지는 신체화, 감각 경험, 지각, 행위, 반응, 움직임의 하위 요소를 가진다.

음악의 여러 음악적 요소들은 우리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 경험의 흐름과 느낌, 사고를 구체적이고도 신체화된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상상적·정서적으로 끌리며, 신체적·질적으로 감동하고 공감하게 된다(Johnson 2007). 몸과 몸의 행위로 습득하는 음악 활동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존재 의미의 생성과정이며(Elliott & Silverman 2015), 몸의 활용이란 움직이는 지체 그 자체의 표현뿐만 아니라 심미적 경험으로서의 작품의 창작 또는 표현을 위한 손과 눈의 활용을 뜻한다(Dewey 1934).

이를 위해 교사는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상태의 단일 신체 감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의 다양한 움직임과 감각을 활용하여 음악을 몸으로 인지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인지된 것을 몸을 활용한 예술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손과 눈은 몸 전체로서 예술 경험의 진정한 도구가 되며, 이는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3) 의미 창조(LCE 2014)

의미 창조는 ‘예술 작품으로부터의 느낌이나 발견한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학습자 자신의 해석을 형성하는 행위(LCE 2014)’로서 지적 분석을 하위 요소를 가진다. 수업 내에 이루어지는 미적 융합교육 활동은 단순히 이론만 벗어난 활동이 아니라 집중력과 사고를 발달시키는 활동으로써 수업 결과물뿐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의미가 남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먼저 예술 작품에 주목하여 선입견이나 기존 지식, 평가를 배제한 작품의 형식과 매체의 활용에 집중하여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발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 창작자의 입장과 의도를 가늠하며 나아가 작품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따른 지적 분석을 통해 작품에 내재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파악된 의미는 자신만의 해석과 경험으로 내면화하며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 내 이루어지는 활동이 의미 없는 능동적 활동 중심 수업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순전히 능동적 활동이기만 할



경우에는 온전한 자신의 경험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성찰하여 내면화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의미화된 경험은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나. 공통(프락시스(praxis)적 특성) 수업원리

### 1) 직접 경험

직접 경험은 ‘학습자가 미적 경험의 주체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학습에 직접적·적극적·능동적·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로 능동성과 적극성, 자기주도성을 하위 요소로 가진다. 융합교육의 결과물은 명제적·지시적 환경이 아닌 자기 자신이 과정적 주체가 된 직접적 경험 활동 속에서 도출되며(조대현 2017), 미적 경험은 학습자 자신이 대상(미적 대상이나 학습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대상의 정서적 특질을 직접 느끼고 고유한 의미를 내면화하는 1인칭적 경험이자 당사자적 경험이다(곽덕주·최진 2018). 예술의 표현과 창작의 즐거움과 긴장감을 알고 나면 동일한 매체로 작업된 미적 대상에 좀 더 깊이 주목하고 관찰하며 반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질문이 생성될 수 있다(Greene 2001).

이를 위해 교사는 일방적인 강의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내용을 조직하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학습자가 하고자 하는 동기와 흥미가 유발되도록 교사의 주의 깊은 관찰과 적극적이고 명료한 시범이나 안내(guide line)가 필요하다. 학습자가 수업 중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환경을 조성한다.

### 2) 상호작용과 소통

‘자신의 아이디어와 느낌을 음악적·예술적·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이해하는 소통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고 공감함으로써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인 상호작용과 소통은 개인의 관점을 두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대상이 어떻게 보이고 느껴질지를 생각해 보며(LCE 2014) 이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 공감과 협력, 파트너십과 협업의 하위 요소를 가진다. 상호작용은 논리적인 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서와 감성의 전제가 필요하다(Golinkoff & Hirsh-Pasek 2018). 상대방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포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견비하고, 상호이해와 갈등의 해소를 위해 자기 생각과 행동, 감정을 조절하며 소통한다(김진수 외 3인 2019). 타인 및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변화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확장된 의미를 내면화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명료한 언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어휘 카드나 사진, 그림 등의 자료를 지원하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울 경우 음악적·예술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별 활동과 협동 중심적인 활동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구성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래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풍부히 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을 조성하며, 자신의 고정관념을 두고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개방성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도록 안내한다.

### 3) 참여와 실천

‘교육을 통해 강화된 안목이나 지식, 결과물을 개인의 삶으로부터 공동체-환경에 이르기까지 실제적 맥락에서 적용·실행·확산하고자 하는 태도(방답이·윤희정 2018)’인 참여와 실천은 자기 자신과 이를 둘러싼 교실 내뿐 아니라 교실 외 사회 공동체를 향해 삶의 고정된 방식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발하는 가치와 행동의 변화, 지속성을 위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지향한다. 미적·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공동체-환경에서의 가치 실천과 확산을 지향하고자 행동하기(LCE 2014)를 하위 요소로 가진다.

이에 교사는 연결성에 기초하여 수업내용과 개인 삶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고, 가치 실천을 위해 반드시 해당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와 연계한다. 실생활에서 음악과 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역할에 대해 안내할 때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예술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맥락적 지식을 활용한 사회 참여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다. 융합교육(융합적·맥락적 특성) 수업원리

### 1) 개방성

‘새로운 대상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접근하고자 하는 사고이자 태도’인 개방성은 지적 호기심, 비관습성, 심미성, 창조성(유태용·이기범·Ashton 2004)을 하위 요소로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변화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태도이다. 이는 대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과 생각에 대해 열린 마음이기도 하며, “널리 깨어 있음, 인지적 생동감, 발견에 대한 지각, 학습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밖의 것을 인식하고자 하는”(Greene 2001) 노력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관습적이거나 고정된 사고 대신 개방적이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조직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내용에 거리낌 없이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열린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대상에 대해 의식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살피도록 삶과 연계된 내용을 제공한다.

### 2) 융합적 사고

융합적 사고는 ‘여러 분야의 유사하거나 공통된 지식에서 연관성을 발견하거나 전혀 다른 것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지적 사고’로 연결성과 유연성, 자신이 알아차린 것과 경험한 내용을 객체로서의 다른 사람의 그것과 연관시키며 확장(LCE 2014)하는 연관성, 맥락화를 하위 요소로 가진다. 타 예술, 타 교과 간의 융합이 미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지적 호기심이 필요로 한다. ‘맥락화’란 융합교육

의 포괄적인 융합을 뜻하는 말로 교육을 통한 ‘앎’과 ‘삶’을 연속 선상에 놓아 일상적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를 고려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과 일상 경험이 맥락적으로 연결·융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Greene 1995).

이를 위해 교사는 고정관념과 틀을 버리고 대상의 속성이나 패턴, 맥락의 유사한 점을 파악하도록 조직(LCE 2014)하고, 유사한 지식을 새로운 문제에 맞게 변형하여 대입하도록 안내한다. 학습자가 학습의 목적과 내용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교사는 적절한 비계(scaffolding)를 설정한다. 단일 차시뿐 아니라 학습의 전 영역과 더불어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의 사회적 맥락을 살필 수 있도록 조직하며,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재맥락화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차윤경 외 3인 2016). 또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길러진 맥락적 앎을 공동체의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3) 실제적 지식

실제적 지식은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형식, 예술가의 의도와 같이 대상(미적 대상 또는 학습 대상)을 구성하는 ‘세계’에 대한 정보이자 수업 활동으로부터 획득한 맥락적이고 과정적인 지식’으로 맥락 정보와 실용성을 하위 요소로 한다. 미적 대상 혹은 학습 대상에 대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대상에 내재한 맥락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대상의 맥락 정보란 미적 대상 또는 학습 대상과 관련 있는 역사적·시대적·문화적 배경이나 예술가의 개인사, 작품 의도, 작품의 형식과 내용과 같이 대상을 구성하는 텍스트이다.

이에 교사는 미적 대상 혹은 학습 대상에 대해 ‘도도한 감식가(haughty connoisseur)(Greene 2001)’가 아닌 창작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접근하도록 안내한다. 맥락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교사 주도의 강의식 설명이 아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총체적 이해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삶의 연계를 위해 획득한 맥락 정보가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탐구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 라. 학습지원(수업도구로서의 장) 수업원리

### 1) 환경 조성

환경 조성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아울러 ‘각기 다른 특성의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업의 안정된 물리적·심리적 경험의 장(場)(LCE 2016)과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움에는 교사의 지도로부터 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물리적)이나 수업 분위기(심리적)로부터 학습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학습자의 긍정적인 ‘개별적 기본경험’의 형성을 유도하는 음악 환경을 제공한다(조대현 2017). 또한,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실 분위기가 필요하며(이승민 2011), 경쟁적이고 이론적인 수업보다 협력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가 수업 효율성을 높인다(강정찬 2015).

이를 위해 교사는 수업 전 교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업목적에 맞는 미적 분위기

를 위해 교실 내부의 환경을 준비한다. 집중적이고 의식적인 주목을 통해 개인이 의미를 새롭게 창조할 때나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 등 시의적절한 수업활동을 위해 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명료히 안내한다. 명확성과 조직성, 대응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가 만족스러운 경험의 여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LCE 2017). 또한, 학습자의 대답이나 발표에 정·오답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뿐 아니라 또래의 격려나 칭찬이 오가는 온정적인 분위기를 촉진한다.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혹은 차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사의 안내로부터 학습자의 내면화 및 참여와 실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완결된 경험’으로 제공한다.

## 2) 성찰

성찰은 ‘학습자가 경험한 교육내용을 돌아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질문을 만들거나 답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과 삶의 연결성을 확장하는 자기인식적 지적 과정’으로 메타 인지를 유발하며, 질문하기와 피드백, 내면화, 자기인식을 하위 요소로 가진다. 성찰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권을 가져가고 질문 과정을 더 진행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LCE 2019)되어야 한다. 내면화 과정 후에는 하나의 완결된 경험을 위해 수업활동 내에서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경험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같은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다른 의미의 집합체로서 다양한 해석의 수용과 인정, 그로 인한 자기인식의 과정으로 또 하나의 완결된 경험이 생성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 자신이 배운 것을 돌아보며 분석하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과,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성찰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한다. 이러한 핵심 질문이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로써 예술 작품 혹은 학습내용 자체가 아닌 작품이나 학습내용에 내재한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진지하고 집중된 시간 속에서 자기 내면과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충분히 제공된 시간 뒤에는 학습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경험을 구성한다. 공유 시 평가를 배제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학습자 서로를 내면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매체 및 자료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제공받는 여러 콘텐츠를 수집·분류·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생성·전달하는 역량’으로 미디어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은 기술의 지배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된 현대에서 예술의 역할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이고도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기술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재정립한다(정은영·김지서 2019).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이고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Castro-Alonso·Ayres & Paas 2015), 콘텐츠를 선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하되 음악 예술이 지향하는 가치가 기술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고, 테크놀로지와 음악적 감성이 문화적 소양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업을 제공하도록 한다.

#### IV. 결론 및 제언

연주 기능을 습득하고 결과물을 완성하는 일련의 현재 교육활동이 평가를 넘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배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융합적인 음악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의 주체인 음악교사의 정체성과 경험에서 비롯되므로 예비교사들의 양성과정에 이러한 교육경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교육과 심미적 교육을 주장한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에 기반하여 음악 교사의 미적 경험과 창의·융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비음악교사 대상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를 위한 수업원리를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연구자는 Greene의 심미적 교육과 이를 방법론화·구체화 시켜 실행하고 있는 LCE 예술교육 및 음악교육에서의 융합교육을 고찰하여 수업원리를 구조화시켰다.

이를 위해 관련된 문헌들을 수집·분석하고 대주제와 소주제를 설정한 후 주제별 핵심원리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선별한 핵심원리를 교차 점검하고 최종 도출한 후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범주는 총 4개로 음악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미적 교육 수업원리, 개인과 전 예술, 그리고 삶과 공동체로 이어지고 적용되는 융합적·맥락적 특성의 융합교육 수업원리, 두 교육 간 공통된 프락시스로서의 공통 수업원리, 이 3가지 수업원리가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 위한 수업도구로서의 학습지원 수업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선별한 28개의 핵심원리 중 각 범주별 대표성을 띠는 핵심원리를 3가지씩 선정하고 나머지 핵심원리는 유사성에 따라 각 대표 핵심원리의 하위 요소로 분류하여 수업원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어 총 12가지의 수업원리를 구조화하고자 각각 정의를 설정하고, 정의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위 요소로 분류한 후 세부 내용과 상세지침을 작성하였다.

수업원리는 독립적인 측면도 있지만, 각각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음악 미적 교육이나 융합교육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이해하고 성찰하는 통합된 과정이므로 이를 촉진하는 교사의 역량 역시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통합된 경험으로 길러져야 한다. 임새롬 외(2020)는 더 나아가 예비교사 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은 이미 구조화된 융합교육을 학습자 입장에서 체험하는 수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융합교육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어와 조직력을 키우고 수업의 역동적인 구조와 그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양질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때 융합교육은 교육목적 그 자체가 아닌 수업의 과정이자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대현(2014)이

말했듯 교사의 융합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교육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융합 교육을 왜 해야 하며 음악교사가 음악 수업에서 실행하는 융합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사 스스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 음악교육이 평가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삶과 자신과의 융합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사 스스로 철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를 교육하는 일은 교사 너머의 학생을 만나는 일이며, 학생의 삶의 질은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원리가 예비음악교사들에게 융합적인 음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예비교사들의 정체성과 수업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원리를 토대로 향후 예비교사를 위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로 예비교사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수업원리의 교육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beethovenian@daum.net

## 참고문헌

- 강정찬.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수업설계원리 개발. 교육방법연구 제27권 3호. 275-305. 2015.
- 곽덕주·최진. 맥신 그리니의 ‘미적 체험 예술교육 접근’의 인문교육적 가치: 새로운 ‘인문적’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탐색하며. 교육철학연구 제40권 2호. 1-26. 2018.
- 권수미. 예술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연구 제41권 2호. 67-100. 2012.
- 김경화·장기범. 음악교육의 융합교육 접근을 위한 융합 개념 논의. 한국초등교육 제26권 4호. 211-234. 2015.
- 김이경·전제상·이진화·김현정·김경현. 교·사대 예비교원 교육실습 교과 영역 개선방안.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 김진수·김한별·박상영·이태욱. 4차산업혁명과 교육. 공감북스. 2019.
- 민경훈·김신영·김용희·방금주·승윤희·양종모·이연경·임미경·장기범·조순이·주대창·현경실. 음악교육학 총론(제2판) 학지사. 2013.
- 방답이·윤희정.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융합 교육 평가들의 제안. 교과교육학연구. 제22권 6호. 386-399. 2018.
- 백성혜·오세라·이영준·정은영·최성욱·최정원·최지연. 융합교육의 이해. 이모션북스. 2017.
- 유대용·이기범·Ashton, M.C.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8권 3호, 61-75. 2004.
- 이승민. 링컨센터예술교육연구소의 미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논. 2011
-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 임새롬 외 3인.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음악교육공학* 제45호. 107-126. 2020.
- 정은영·김지서. 기술융합 예술교육의 이론적 토대와 실천 방향.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제37권 5호. 336-346. 2019.
- 조대현.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구현을 위한 제언. *음악과 민족* 제48호. 183-210. 2014.
- 조대현. 음악 중심 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 *음악교육공학* 제31호. 21-42. 2017.
- 차윤경·안성호·주미경·함승환. 융복합교육의 확장적 재개념화 가능성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제9권 1호. 153-183. 2016.
- Aschbacher, P. R., Ing, M., & Tsai, S. M. *Boosting student interest in science*. Kappan Magazine, 95(2), 47 - 51. 2013.
- Castro-Alonso, J. C., Ayres, P. & Paas, F. The Potential of Embodied Cognition to Improve STEAM Instructional Dynamic Visualizations. In Ge, X., Ifenthaler, D. & Spector, J. M. (Eds.), *Full steam ahead: Emerging technologies for STEAM Education*. 113-136. New York: Springer. 2015.
- Dewey, J. *Art as Experience*. TarcherPerigee. / 박철홍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나남. 2016.
- Elliott, D. J., & Silverman, M. *Music Matt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Greene, M. Doing Philosophy and Builing a World, *Teacher as Stranger, : Educational Philosophy for the Modern Age*.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73. / 양은주 역. 교사를 일깨우는 사유. 2007
- Greene, M. *Landscape of Learn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78.
- Greene, M. *Releasing the Imagination: Essays on Education, the Arts, and Social Chang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5. / 문승호 역. 상상의 나라 펴기. 박영story. 2019.
- Greene, M. An Autobiographical Remembrance. *The passionate mind of Maxine Greene: I Am — Not Yet*. London; Bristol, PA : Falmer Press, Taylor & Francis. 9-12. 1998.
- Greene, M. *Variations on a blue guitar: The Lincoln Center Institute lectures on aesthetic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001. / 문승호 역. 블루 기타 변주곡. 다빈치. 2011.
- Golinkoff, R. M. & Hirsh-Pasek, K. / 김선아 역. 최고의 교육. 예문아카이브. 2018.
- Hart, C. *Doing a literature search: A guide for the social sciences*. London, UK: Sage Publications, Inc. 2001.
- Immordino-Yang, M. H., & Damasio, A. *We Feel, Therefore We Learn: The Relevance of Affective and Social Neuroscience to Education*. *Mind, Brain, and Education*. 1(1). 3-10. 2007.
- Johnson, M. *The Meaning of the Body: Aesthetics of Human Understanding*. Chicago: University

- of Chicago Press. 2007. / 김동환·최영호 역. 몸의 의미: 인간 이해의 미학. 동문선. 2012.
- McTighe, J. & Wiggins, G. *Essential Questions: Opening Doors to Student Understanding*. VA: ASCD. 2013. / 정혜승 외 역. 핵심 질문: 학생에게 이해의 문 열어주기. 사회평론. 2016.
- Reigeluth, C. M.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83. / 박성익·임정훈 역. 최근의 연구동향에 따른 교수설계의 이론과 모형. 교육과학사. 1993.
- Stead, D. R. *A review of the one-minute paper*. *A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6(2), 118 - 131. 2005.
- Stepniak, M. *Artful transformation? Considering Maxine Greene's arts encounters as examples of transformative learning*. DDOD. Harvard University. 2006.
- Kohli, W. A Situated Philosopher. *The passionate mind of Maxine Greene: I Am –Not Yet*. London; Bristol, PA : Falmer Press, Taylor & Francis. 180-189. 1998.



<Abstract>

##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Principles in Music Education Based on Convergence Education

Saerom Im · Kyunghoon Min · Seoung-Hey Pa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nvergence-based instructional principles in music education to strengthen the aesthetic experience, creativity and convergence capabilities of prospective music teachers. To this end, Greene's philosophy of art education, which advocated wide-awakeness through aesthetic experience with art, and LCE's prior literature on art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were analyzed and key principles were derived through a meeting of experts in each fiel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imilarity and representation of key principles, they were reorganized into 12 sub-topics of 4 categories in total. First, three aesthetic education teaching principles for discover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music: conscious attention, embodied cognition, meaning creation. Second, three principles of convergence education for connection with one's life and the whole art: openness, convergent thinking, and practical knowledge. Also there are three common principles of Praxis characteristics between two educations: direct experienc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practice. Lastly, there are three principles of learning support as a tool for successful practice of each principle: environmental build-up, reflection, and digital media literacy. The teaching principles reorganized into a total of 12 sub categories above were structured into definitions, sub-elements, details and detailed guidelines. The instructional principle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will be more useful when designing and implementing convergence-based music education classes in the stage of training prospective music teachers.

**KEY Words:** Greene, LCE, Prospective Teacher Education, Music Education, Aesthetic Education, Art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Instructional Principles

■ 접수일(2021년 8월 31일), 수정일(2021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2021년 10월 12일) 교신저자 백성혜

